

카리브해 지역의 역외금융센터 :

과거, 현재, 향후 가능성



부산국제금융진흥원
Busan Finance Center

본 보고서는 IMF에서 발간한 “Caribbean Offshore Financial Centers : Past, Present, and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을 참고하여 학술적 연구 및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업적 용도로의 활용은 제한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기업 활동, 금융 투자 또는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금융연구2실 금융중심지 1팀 박태혁 매니저

T. 051-631-0283 E. biz1@kbfc.or.kr

카리브해 지역의 역외금융센터 : 과거, 현재, 향후 가능성

(2025. 4. 7, 금융중심지1팀)

1 카리브해 지역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 OFC)의 역사

□ 카리브해 지역 최초의 해외 사업은 1936년 바하마에 은행 설립

- 영국과 캐나다의 이해 관계자가 부유한 국제 고객의 투자를 위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National Westminster Bank)

□ 역외금융센터 형성기 : 1960~1970년대

- 1960년대 이후 바하마(The Bahamas), 케이만제도(Cayman Islands),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등이 자유로운 금융 환경을 제공하며 미국과 유럽의 자금이 몰리기 시작
 - 바하마(Bahamas) : 1960년대 초반부터 스위스 및 유럽계 은행들이 프라이빗 बैं킹을 제공하며 발전
 - 케이만제도(Cayman Islands) : 1966년 영국 정부 지원으로 금융 자유구역 설립 → 이후 유럽 및 미국 자본 유입 본격화

□ 본격적인 성장과 국제적 주목 : 1980~1990년대

- 미국과 유럽의 세금 및 금융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과 개인들이 카리브해 지역의 OFC로 대거 이동
 - 자금 운용 효율성 확보(낮은 세율과 운영비용 절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자산 보호를 위한 신탁(Trusts) 서비스가 활성화
- 역외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을(신규 고용 창출과 정부의 세수 증가) 목격한 후, 인접 국가들도 OFC 설립을 통해 긍정적인 파급 효과(positive spillover effects)¹⁾ 기대

1) 어떤 요소의 생산활동이 그 요소의 생산성 외에 다른 요소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올리는 효과

□ 국제적인 규제 압력에 맞춘 변화 : 2000년대 이후

- 2000년대부터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과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조세 회피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
- 2009년 미국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세금준수법) 시행
→ 미국 납세자들의 조세 회피 차단
- 여전히 BVI, 케이만 제도, 바하마 등은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기능하며 디지털 금융 및 핀테크 중심(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금융 서비스 적극 도입)으로 전환을 시도중임

※ 카리브해 지역 내 OFC 발달 이유

- (역사적 배경) 카리브해 국가들은 대부분 영국과 유럽 식민지였으며, 영국법 체계(Common Law)를 기반으로 금융 및 법적 시스템이 형성
- (경제적 이유) 국가 경제 및 산업구조의 다각화 시도 (농업 → 관광 → 역외금융)
 - (농업에서 관광산업으로의 전환 시도) 경제 구조를 관광 중심으로 전환한 국가들은 관광 부문의 성장만으로는 향후 1인당 GDP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
 - 관광 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국가로 인한 경쟁 심화
 - 관광 편의성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발 및 투자 필요성
 -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 관광지 훼손 우려 등에 따라 관광객 수 제한으로 인한 성장의 한계
 - (역외금융중심지로서의 전환 시도) 초기 투자비용 대비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인식
 - 물리적 인프라에 큰 투자가 없이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
 - OFC를 설립하는 데는 최신 통신 시스템 외에 대규모 자본 투자나 대규모 숙련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

2 역외금융센터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 역외금융센터가 제공하는 합법적이고 중요한 서비스 분류

- Private investment : 세금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여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 법정 비밀준수 조항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와 자산 내역을 보호
- 자산 관리 및 보호(Asset Protection) : 고객의 거주하는 국가의 정치적, 재정적, 법적 위험으로부터 분리해서 소득과 자산을 보호
- 장기적 자산 관리와 승계(Estate planning) : 개인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망 후 자산 분배(유산세 부담 등) 및 이전 계획

〈Box 1. Uses of Offshore Financial Centers 역외금융센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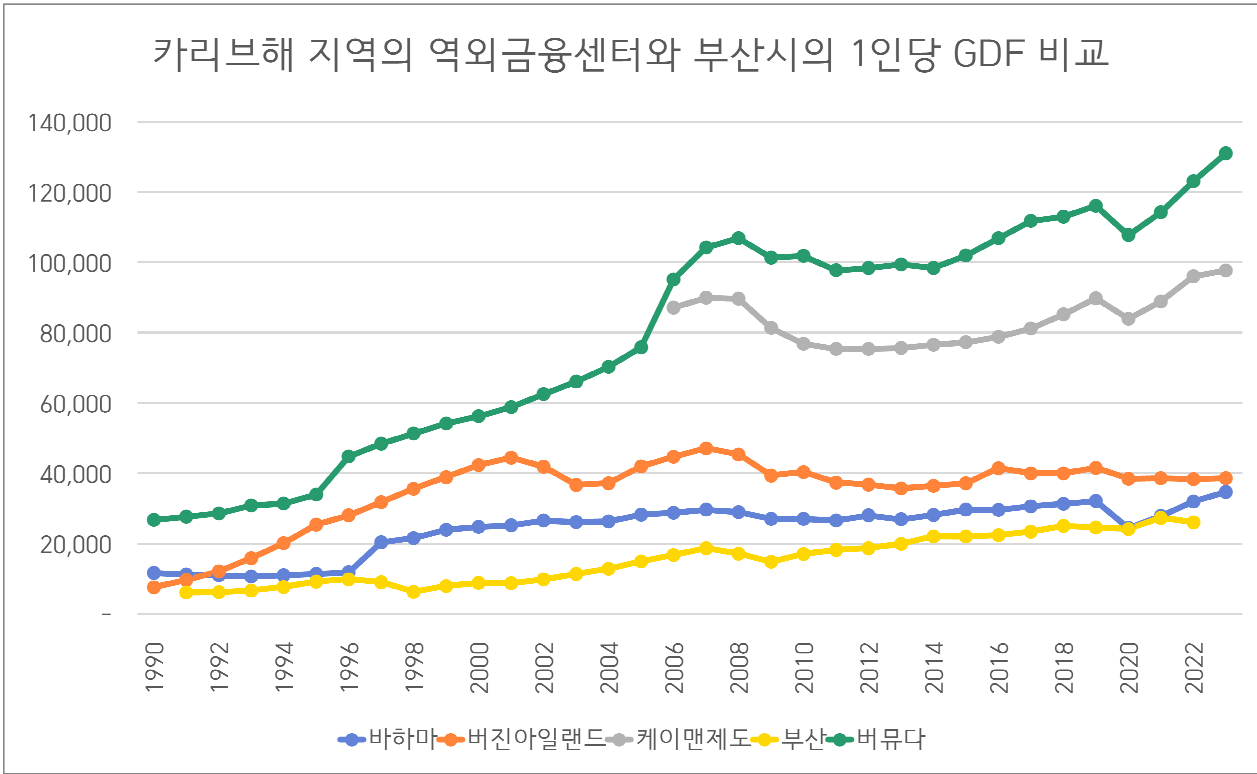
- **역외은행(Offshore banking)** : 개인, 법인, 은행은 외환 거래나 자금 조달을 위해 개설
 - 낮은 세율이나 세금 면제 혜택, 외환거래 규제가 없으며, 감독 및 보고 요구 사항이 적음 (금융 프라이버시를 제공 가능)
- **국제사업법인(International Business Corporations, IBCs)** 주로 해외 사업을 위한 법인으로 조세 회피, 자산 보호, 국제 무역 및 투자 활동²⁾을 위해 사용되며 대부분의 세금³⁾이 면제됨
- **보험회사** : 위험 관리와 세금 절감, 보험비용 절감을 위해 OFC에 보험사를 설립
 - 국내 보험회사는 일부 위험을 재보험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여 낮은 지급준비금 및 자본 요건을 낮출 수 있음
- **자산 관리 및 보호** : 경제나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한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자산을 OFC에 보관함으로써 자국의 통화나 은행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외환거래 규제정책(exchange controls)을 피해 자산을 보호(본 국에서는 자산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개인은 해외 신탁을 통해 자산 소유권을 재구조화하여 자국의 소송으로부터 자산을 보호)
- **Tax planning** : 다국적 기업 및 개인(신탁이나 재단법인의 형태)은 OFC에서 제공하는 유리한 세금 체계 및 조세 조약을 이용하여 전체 세금을 최소화
- **Money laundering(자금 세탁)** : 불법 활동에서 얻은 돈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과정

2) 사업 운영을 하거나 주식, 채권, 기타 금융 상품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 부동산 투자 및 국제 거래에서 흔히 사용)

3)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배당세 등

3 역외금융센터의 경제적 규모 및 효과

□ OFC 주요국가와 부산의 1인당 GDP⁴⁾ 비교



출처 : UN data,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KOSIS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e나라지표 자료 재구성

○ 부산과 각 국가별 1인당 GDP 차이 비교(1991년~2022년)

단위 : 배

구분	1991	2000	2006	2010	2015	2022	평균
바하마(The Bahamas)	1.8	2.8	1.7	1.6	1.3	1.2	1.8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ritish Virgin Islands)	1.6	4.8	2.7	2.4	1.7	1.5	2.6
케이맨제도 (Cayman Islands)	-	-	5.19	4.5	3.51	3.68	4.0
버뮤다(Bermuda)	4.5	6.4	5.7	6	4.6	4.7	5.3

- OFC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우려와는 달리 장기적 경제적 성장 추이를 보임

4)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한 사람당 생산된 경제적 가치(기여)를 나타내며, 경제적 평균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데 사용

□ OFC 연관 정부 세금수입(면허 수수료) 비중

단위 :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고
바하마(The Bahamas)	1.3	1.2	1.1	2.0	2.4	2.4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ritish Virgin Islands)	40.1	42.2	44	51.7	52.5	54.6	
케이만제도 (Cayman Islands)	13.2	12.8	10.9	12.3	14.5	14.6	

○ 국가별 OFC 부문 면허 수수료 의존도 확인

- 전세계 IBC 설립(누적 법인 수 314,000개, 2001년) 부문을 선도(전세계 신규법인 설립의 45%, 2000년)하는 버진아일랜드 정부는 OFC 등록면허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으며, 정부 수입의 약 55%, GDP의 13% 차지(US\$ 96.7 million, 1,413억원, 2000년)

□ OFC 금융산업 규모(연관된 등록회사 및 펀드의 수)

단위 : 개수

구분	국제회사 법인(IBC)	역외 은행	역외보험 회사	신탁회사	뮤추얼 펀드	소계
앵귤라(Anguilla)	1,876	1	18	6	-	
앤티가 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8,000	22	-	6	-	
도미니카(Dominica)	7,536	5	2	5	-	
그레나다(Grenada)	3,400	44	6	11	-	
세인트키츠 네비스 (St. Kitts and Nevis)	22,450	1	-	2,020	-	24,471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0,075	38	1	896	5	11,015
바하마(The Bahamas)	100,092	415	-	-	600	101,107
바베이도스(Barbados)	3,399	45	239	-	-	3,683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ritish Virgin Islands)	314,158	-	395	-	2,013	316,566
케이만제도 (Cayman Islands)	49,456	450	502	25,000	2,298	77,706
합계	520,442	1,021	1,163	27,944	4,916	555,486

□ 역외금융 산업 관련 종사자 및 국가별 특징

단위 : 개수

구분	역외금융 관련 종사자 (2000년 기준)	국가별 특징
앤티가 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2,500	인터넷 게임회사 면허 수수료 : 1,300만 동카리브달러 (EC\$ 13 million, 약 71억원, 1996~1997년 기준)
바하마(The Bahamas)	950	· 역외금융 면허등록 수수료 수입이 GDP의 15% 차지 · 펀드 수와 운용자산 규모 세계 5위권 (뮤추얼펀드 700개 이상, 운용자산규모 100억달러, 약 14조 6150억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ritish Virgin Islands)	940	역외금융 면허등록 수수료 : 9,670만 미 달러(US\$ 96.7 million, 약 1413억원, 1999년)

□ OFC 산업 발전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positive spillover effects)⁵⁾

- (서비스업의 발전) 일반적으로 금융 서비스가 지역 경제에서 성장하면 그에 따른 수요로 인해 관광 서비스업(호텔, 레스토랑, 케이터링 서비스) 발달
- (인프라 개발, 개선 및 확장)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인프라가 개발되고 업그레이드됨
- (교육 및 기술 발전) 금융 산업은 고급 기술과 교육을 필요
 - 교육 기관들이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설(지역의 노동력 수준을 향상,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
 - 초창기 외국 기관들은 현지 직원들을 주로 하위 직급에만 고용하고, 많은 전문 직책은 자국 노동자를 이용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 직원을 전문적인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
 - 핀테크, 블록체인, AI와 같은 기술들이 금융 산업에 도입되며 디지털화 및 기술 혁신을 촉진
- (고용 창출) 다양한 직종에서 일자리 기회가 창출
 - 금융(은행, 투자, 보험, 자산관리 분야), IT, 고객 서비스 직원 등 여러 분야에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짐

5) 어떤 요소의 생산활동이 그 요소의 생산성 외에 다른 요소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올리는 효과

- (소비자 혜택) :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선택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더 나은 대출 조건, 투자 기회 등을 제공
- (경제 성장 촉진) :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기업들이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며, 이는 기업의 성장과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짐
- (글로벌화 촉진) : 국가 간 경제적 연결을 강화시키고, 글로벌 무역 및 투자 확대에 기여. 특히 해외 금융기관들이 진출하면서, 글로벌 경제와의 연계가 강화

4 역외금융센터의 역기능

□ 글로벌 금융 흐름의 급격한 변화에 취약

- 경제 규모가 작고 개방적인 국가의 금융 시스템은 국제금융 흐름의 급격한 변화에 취약할 수 있음
 - ① 감독이 부족하고 역내금융과 역외금융을 분리하는 “방화벽(firewalls)” 이 불완전한 환경에서의 대출(역외 은행이 건설이나 일반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역내 고객에게 대출하는 상황)
 - ②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이 부실화되거나 파산하면 국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
 -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클수록, 경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에 더 취약
-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와 그 이후의 금융 구조조정, 규제 개혁 및 기관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 기관의 규제 능력, 위험 관리 시스템, 리더십 및 정책 실행 능력 등을 강화) 등 논의가 이어지면서 OFC에 대한 검토가 강화

□ 자금도피처로서 대외이미지 악화 우려 및 국제기준 준수 비용의 증가

- 조세 회피와 자금 세탁 기능으로 집중적인 조사(scrutiny)의 원인
 - 1990년대 후반, 국제 사회는 OFC를 통한 자금 세탁과 세금 회피에 대한 우려 (많은 OFC가 느슨하게 정의된 규제 및 감독 환경에서 운영)가 커지면서 여러 국제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

- FATF는 40개의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⁶⁾를 발표(1990년 4월)
 - 보고서 주요 내용
 - 자금 세탁을 범죄로 규정
 - 범죄 용의자에 대한 수사, 기소 및 송환에 있어 국제 협력
 - 고객알기(KYC) 규칙 : 은행이 범죄 세력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감독 정책, 관행 및 절차의 존재
 - 의심스러운 정보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 교환
 - 각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 내에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
 - 이는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기관을 두어야 할 필요성 대두(이러한 기관이 없을 경우, 국제 사회에서 제재가 부과될 위험이 크게 증가)
 - ※ (참고) 국가별 역외금융부문 감독·규제기관 신설
- 금융안정포럼(FSF)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 세탁 관련 보고서를 발표(2000년 6월)
- FATF는 (40개 권고안을 기반으로 마련된) 25개 기준을 사용하여 30개의 비회원국 또는 지역을 평가(자금 세탁을 촉진하는 정도와 국제 기준에 대한 법적 및 감독 시스템의 적절성) 후, 제제 실시
- 평가 기준의 네 가지 주요 영역
 - 금융 규제의 허점
 - 규제 요건으로 인한 장애물
 - 국제 협력에 대한 장애물
 - 자금세탁 방지 및 탐지를 위한 자원의 부족
- 조사 결과 : 15개 국가가 비협조적 국가(Non-cooperative Countries, NCCT)로 선언
 - (그중 6개는 영어권 카리브해 지역 국가)

6)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The Forty Recommendations"

구분	점수 총계	비고
세인트키츠 네비스(St.Kitts and Nevis)	19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St.Vincent and the Grenadines)	15.5	
케이만 제도(Cayman Islands)	15	
도미니카 공화국 (República Dominicana)	14	
바하마(The Bahamas)	11	
그레나다(Grenada)	6	

- 카리브해 지역의 여섯개의 국가들이 비협조적인 국가로 선언된 주요 이유

- ① 기관에 대한 비밀 유지 조항, 특히 기관의 소유자와 주주를 공개하는 데 있어 비협조적이었던 점
 - ②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적절한 시스템의 부재
 - ③ 사업 및 법인 등록을 위한 법적 요건의 부족
 - ④ 자금 세탁 활동 조사를 위한 국제 협력에 장애물이 존재하는 점
- 미국 9.11 테러사건 이후(2001년) 감시 감독 더욱 강화(테러리스트 자금 조달의 출처를 파악)
- 특히, 자금 세탁과 관련하여 마약 밀매 외의 범죄 행위도 불법화

○ FATF, 한국 자금세탁방지 최고등급국으로 상향

- 한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2024년 10월 27일)에서 평가 등급이 '강화된 후속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정규 후속점검'으로 상향 조정
(평가 등급은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제재대상'의 세 가지로 분류)
- 이는 2001년 자금세탁방지 체계(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도입 이후 23년 만에 국제사회로부터 모범국으로 인정받은 성과

참고 기사 : FATF, 韓 자금세탁방지 최고등급국 상향...북은 14년째 고위험국(종합)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준수를 위한 각종 비용이 증가

- 광범위한 법적 및 규제 체계 구축
- 필요한 감독 규제와 기관을 설정
- 감독 전문인력 교육

5 보고서의 결론

□ 경제 다변화 전략으로서의 역외 금융

- 많은 카리브해 국가들이 농업이나 관광중심의 경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역외 금융 부문을 경제 다변화 수단으로 고려
- 초기에는 적은 인프라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 국제 기준 하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국제적 규제 환경 변화

-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 활동과 연관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OFC에 대한 국제적 압력 증가
- 기존 주요 허브(바하마, 케이맨제도 등)도 추가적인 규제 개선 요구를 받고 있음

□ 신규 진입국의 진입 장벽

- 규제기관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초기 고정비용이 크며, 순이익이 불확실
- 경쟁 심화로 인해 수수료 차별화는 어려워, ‘평판’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

□ 정책적 시사점

- 역외금융 부문 진출 또는 확대는 높은 규제 비용, 제한된 순이익, 국제적 신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단기 수익보다 지속가능성과 국제기준 적합성을 중심으로 진입 전략 수립 필요. 끝.